

第26回 定期總會 개최



정기총회 전경



개회사를 하는 오운동 회장



건설부장관 축사를 대독하는 이상룡차관

본 협회 제26회 정기총회가 지난 29일 본협회 대강당에서 재적대의원 398명중 332명이 참석한 가운데 吳雲東회장의 成員報告로 개최되어 국민의례와 건축사현장 낭독이 있는 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개회사에서 吳雲東회장은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조속한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해 당국과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경제 난국극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인내하며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했다.

그리고 단독사무소 업무범위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의 효율적개정추진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협회 운영체제개선 등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잔여임기동안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룡건설부장관이 대독한 장관차사에서 이진설장관은 「UR에 따른 건축설계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에 따른 기술개발연구 등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만

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최이호 국회건설위원회 위원, 신현식 대한건축학회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회의록 승인과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92년도 시·도건축사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보고를 듣고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 유경철대 의원의 동의와 대의원 만장일치로 부의안건 상정에 있어 심의 순서를 집행부 원안에서 제6호의(안)인 건축사연금규정개정(안)승인의 건을 제2호의 안으로 하고 나머지의 안은 차례로 순연해서 일괄하여 의장이 상정한 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2시5분에 의장이 속개를 선포하고 부의안건처리에 들어가 제1호의안 : '91년도 제1차 특별회계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제3호의안 : '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제4호의안 : '92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92년도 건축법령 연구소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건축사연금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제7호의안 : 임원개선의 건 順으로 일괄 상정하여 개별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91년도 제1차 특별회계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조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제2호의안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승인의 건은 강기세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을 폐기하지는 동의를 있어 거수표결 146인의 찬성으로 원안이 폐기되었다.

• 제3호의안 : '9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은 조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국건축사대회비 8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개의에 대해서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 제4호의안 : '92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은 조

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만장일치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였다.

• 제5호의안 : '92년도 건축법령 연구소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은 조상호이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2개월마다 받는다는 조건하에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제6호의안 : '92년도 건축사연금회계수지예산(안)승인의 건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 제7호의안 : 임원개선의 건은 감사1인과 이사 5인의 선출로서 이사5인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선임을 의장에게 일임하기로하여 의장이 지명한 장기웅, 이의구, 정소, 김무언, 강태석대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1인은 대의원의 호선으로 강우식형참여이사가 만장일치로 감사에 선출되었으며 결원된 참여이사1인에 김지덕회원을 의장이 선임한 후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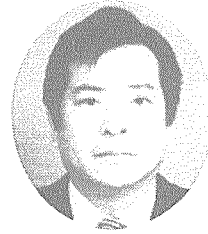
새질서 새생활 결의문 채택



결의문을 낭독하는 한중언 감사



신임임원소개



姜 泰 錫

- 40년 11월20일생
- 66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85년 연세대 산업대학원 수료
- 84.3. ~87.3. 대한건축학회 이사
- 89.11~90.12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현재 (주)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鄭 昭

- 42년 3월6일생
- 67년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 86년 연세대 산업대학원 졸업
- 87년 서울건축사회 감사, 감사
-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건축(주)대표



金 武 彦

- 43년 6월17일생
- 65년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
- 현재 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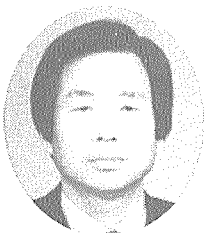
李 義 求

- 41년 1월15일생
- 63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91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취임 (홍보편찬위원장)
-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장건사 대표



金 知 德

- 42년 3월30일생
- 64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77년 전북대 공과대학원 졸업
- 83.1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부위원장 및 위원장
- 현재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張 基 雄

- 39년 1월15일생
- 64년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 84년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 87.11.1~91.11.11 대구건축사회 회장
-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대동·협동 대표



康 祐 植

- 35년 2월20일생
- 60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86.12.5~89.1.31 충남건축사회 회장 역임
- 90.12.1~91.11.30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역임
- 현재 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학 건축과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李文雨)는 지난 22일 대학과의 긴밀한 유대를 이루어 교육과 실무에 있어 실습, 취업, 정보교환 등을 통한 산·학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건축심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등을 협의하여 회원 업무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대학건축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건축과 교수들은 한국 건축전작품공모에서 있어 실무에 적용되는 주제와 조건으로 공모할 것과 건축사무소의 수급

인원을 협회에서 취합, 수급인원을 각 학교에 통보하고 각 대학과 건축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요청하였으며, 건축사회에서는 건축심의시 실무업무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심의하고 대학에서 실기교육에 있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산·학 협동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서울건축사회 간담회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 결의 대회

光州건축회장(회장徐延珉)에서는 지난 27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치, 낭비, 과소비 풍조를 바로 잡고 땀흘려 일하는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개최된 이날 대회는 지역사회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회원 친목단합행사 개최

光州건축사회(회장徐延珉) 지난 15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회원친목단합행사를 개최하였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코자 실시한 이번 단합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참석자 전원에게 운동복 및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서로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친선체육대회 개최

忠北건축사회(회장李容鐵)에서는 지난 20일 관내회원 및 보조원과 가족들의 친목도모 유대강화를 위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충북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날 체육대회에는 배구, 족구, 윷놀이 등을 통하여 회원 보조원, 가족들의 우의와 친목을 다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건설위원 및 관계관 초청 간담회

慶南건축사회(회장崔鳳享)에서는 지난달 7일 경남건축사회관 소회의실에서 경남의회 건설위원 및 관계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분회장을 포함한 분회임원 19명과 경남의회 건설위원 18명,

관계관 1명 등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주차장법관련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관한 의견, 등 건축계 전반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정부제3청사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대전 둔산지구에 들어설 정부제3청사 현양 설계공모결과 삼우종합건축(대표:김창수)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총 40개 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엄이종합건축(대표 엄덕문)과 건원국제종합건축(대표 한현호)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삼우종합

건축안은 부지중앙에 지상20층 지하3층의 건물4개등을 마름모꼴로 배열한 모양으로 낮은층에는 후생안내등 공용시설을 높은층에는 일반사무실을 배치하고 첨단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쉽도록 계획되었다. 청사는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95년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96년에 조달청의 10개 청급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